제 18 강 한국의 불교 철학

1. 화엄의 '사사무애(事事無碍)'와 선불교의 '자유 정신'

1) 화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그물로 보다.

◇ 조화의 추세는 자성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통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모습은 연기로 말미암아 생성될 수 있다. 하나와 여럿은 완전히 서로 포섭하니 하나의 조그마한 티끌만 보아도 전체가 갑자기 나타나며, 이것과 저것은 서로 받아들이니 가느다란 머리카락 하나만 보아도 모든 사물이 함께 나타난다.
鎔融之勢, 因無性以得通. 任運之形, 因緣起以得會. 一多全攝, 窺一塵所以頓彰. 彼此相收, 瞻纖毫以之齊現.
『화엄경의해백문(華嚴經義海百門)』「鎔融任運門」
◇ 커다란 작용이 다투어 일어나니, 일어나는 것마다 모두 참되다. 모든 현상은 대단히 혼잡하지만 상호 혼합되어도 (자기 동질성을 잃고) 섞이지 않는다. 일체는 곧 하나이니(一切卽一), 일체와 하나는 모두 자성을 가지지 않는다. 하나는 일체이니(一卽一切),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의 힘과 여럿의 작용은 서로를 포괄하고, 그것들의 말아 넣고 펼침[卷舒]이 자유롭다.
-繁興大用, 起必全眞.萬象紛然, 參而不雜. 一切卽一, 皆同無性, 一卽一切, 因果歷然. 力用相收, 卷舒自在.『華嚴金師子章』「論五敎」

→ 세계라는 거대한 그물은 횡으로 종으로 수많은 실이 엮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실들이 교차한 지점들이 바로 세계의 존재자들을 상징한다. 이 교차 지점을 하나 잡아당기다가 놓으면, 전체 그물은 그 울림을 받아 진동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화엄은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루되어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체는 곧 하나이고(一切卽一), 하나는 일체(一卽一切)"라는 화엄 철학의 생각은 사사무애(事事無碍)라는 슬로건으로 정리되기도 한다. 즉 모든 현상적 존재자들은 서로에 대해 장애가 되지 않고,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 화엄은 우리가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안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화엄의 이런 생각은 전체주의적 정치이념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것 아닌가? 이 점에서 화엄의 이론가 법장(法藏, 1350~1428)이 측천무후에게 화엄을 강의하였고, 스즈키 다이세쯔(鈴本大拙, 1870~1966)가 일본 천황에게 화엄을 강의했던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선불교, 자유로운 주체가 되는 방법

◇ 삶 속에서의 해탈과 자유를 추구하다.

◇ 만약 자신의 본마음을 깨달으면 이것이 곧 해탈이다. 일단 해탈을 얻으면 이것이 곧 반야삼매[역주: 반야는 지혜를 뜻하고, 삼매란 선정에 들었을 때의 경지를 말한다]이다. 반야삼매를 깨달으면 이것이 곧 무념(無念)이다. 어떤 것을 무념이라고 하는가? 무념이란 불법은 일체의 모든 대상을 보면서도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일체의 모든 장소를 두루 다니면서도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항상 자성을 청정히 하여 여섯 가지 도적을 여섯 가지 문에서 쫓아내고

육진[역주: 다섯 종류 감각 대상과 한 가지 사유 대상]의 경계 속에 있으면서도 이것과 떨어지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으며 가고 오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 반야삼매이며, 자유자재한 해탈이니 이것을 무념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면 생각을 끊어야 한다고 하지 마라. 이것은 곧 불법에 속박된 것이며, 한쪽에 치우친 편견이라고 말한다.
若識本心, 卽是解脫, 旣得解脫, 卽是般若三昧. 般若三昧, 卽是無念.
何名無念? 無念法者, 見一切法, 不著一切法, 遍一切處, 不著一切處,
常淨自性, 使六賊從六門走出, 於六塵中不離不染, 去來自由, 卽是般若三昧,
自在解脫, 名無念行. 莫百物不思, 當令念絶, 卽是法縛,
卽名邊見.『六祖壇經(敦煌本)』33

→선불교는 새로운 불교 이론을 창안했다기보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다고 기억될 필요가 있다. 집착이나 해탈은 모두 나의 마음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선불교는 생활의 현장에서 집착 없는 마음으로 대상이나 타자와 관계하려고 하였다. 이 점에서 선불교의 정신은 고통을 받는 장소가 삶의 공간이라면, 해탈과 자유를 얻는 공간도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생활세계를 강조하는 선불교의 정신은 '화두(話頭)'의 사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도 집착에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화두라고 불리는 질문은 집착을 가진 마음으로는 풀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 결국 화두를 풀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집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 된다.
→ 「육조단경(六祖壇經)」에는 혜능(慧能, 638~713)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혜능이 남해에 머물던 인종(印宗, 627~713)법사의 「열반경」 강의를 듣던 중이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흔들렸다. 그러자 한 승려가 이렇게 화두를 던졌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러자 승려들은 깃발이 흔들린다고 하거나, 바람이 흔들린다며 두 패로 나뉘었다. 혜능에게 한 승려가 물었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러자 혜능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대 의견을 지닌 다른 승려가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물었다. '그럼, 깃발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혜능은 다시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갸우뚱하면서 승려들은 물었다. '아니,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혜능은 말했다. '각자 마음이 흔들릴 뿐이다.'
→ 「조당집(祖堂集)」에는 '단하가 부처를 태우다', 즉 '단하소불(丹霞燒佛)'로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온다. "낙양(洛陽)의 혜림사(惠林寺)에 머물 때 단하(丹霞, 739-824) 스님은 추운 겨울날 법당의 목불(木佛)을 꺼내 불을 지폈다. 그때 혜림사의 주지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자, 단하 스님은 '나는 부처님을 태워서 사리(舍利)를 얻으려고 하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지는 '목불인데 어찌 사리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단하 스님은 '사리가 안 나올 바에야 나무토막이지 무슨 부처이겠는가?'라고 이야기했다."

◇ 선불교의 정신은 임제에 의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 안이건 밖이건 만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죽여 버려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라. 그렇게 한다면 비로소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向裏向外, 逢著便殺. 逢佛殺佛, 逢祖殺祖, 逢羅漢殺羅漢, 逢父母殺父母,
逢親眷殺親眷, 始得解脫. 不與物拘, 透脫自在.「임제어록(臨濟語錄)」13:17
◇ 불교의 가르침에는 특별히 공부할 곳이 없으니, 다만 평상시 일없이 똥을 누고 소변을 보며,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서 쉬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다. 옛사람은 "외부로 치달아서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 멍청한

놈들이다"라고 하였다.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나 주인이 된다면 자신이 있는 그곳이 모두 참되어, 외부대상도 그것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설령 과거의 나쁜 습관과 다섯 가지 커다란 범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해탈의 커다란 바다가 될 것이다.
佛法無用功處, 祇是平常無事. ?屎送尿, 著衣喫飯, 困來卽臥. 愚人笑我, 智乃知焉. 古人云, 向外作工夫, 總是癡頑漢. 爾且隨處作主, 入處皆眞, 境來回換不得, 縱有從來習氣, 五無間業, 自爲解脫大海.
「임제어록(臨濟語錄)」12:1

→ 임제(臨濟, ?~867)는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이념도 배제해야 해탈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초월적인 이념들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실현되는 자신의 마음을 왜곡하고 검열하는 계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초월적인 이념들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은 유식 불교에서 말했던 거울과 같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형될 수 있는 법이다. 깨달은 자, 즉 부처를 만나면, 우리 자신은 깨닫지 못한 자라는 '자리'에 서게 된다. 스승을 만나면, 우리는 제자라는 '자리'에 서게 된다. 부모를 만나면 우리는 자식이라는 '자리'에 서게 된다. 삼촌을 만나면 우리는 조카라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렇게 선택된 우리의 자리는 모두 열등한 자리,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만난 것들을 탁월한 것,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로부터 우리의 삶은 부족한 것으로, 태생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변질되고 만다. 그래서 임제는 초월적인 목적, 즉 내가 본받아야 할 숭고한 목적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관념을 죽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오직 그럴 때만 우리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원효의 연못

◇【논】일심의 법에 의거하여 두 가지 종류의 문이 있다. 무엇을 두 가지라고 하는가? 하나는 심진여문이고, 다른 하나는 심생멸문이다. (…) 심생멸이라는 것은 여래장에 '의거하기' 때문에 생멸심이 있는 것이다. 이른바 불생불멸의 마음과 생멸의 마음이 화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아뢰야식이라고 부른다.
【별기】생멸하지 않는 마음과 생멸의 마음의 경우 마음의 체는 둘이 아니다. 단지 두 가지 뜻으로 마음을 취하여 둘로 삼았기에 '의거한다'고 말했을 따름이다. 예를 들어 움직이지 않는 물에 바람이 불 때 그것은 움직이는 물이 된다. 움직임과 고요함이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물의 체는 하나일 따름이어서, '고요한 물에 의거하여 이런 움직이는 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論】依一心法有二種門. 云何爲二? 一者心眞如門, 二者心生滅門. (…) 心生滅者, 依如來藏故有生滅心. 所謂不生不滅, 與生滅化合, 非一非異, 名爲阿黎耶識.
【別記】不生滅心與生滅心, 心體無二. 但將二義取心爲二以說依耳. 如不動水, 爲風所吹而作動水. 動靜雖異, 水體是一, 而得說言依靜水故有其動水.

→ 원효(元曉, 617-686)는 인도의 마명(馬鳴, 100-160?)이 저술했다고 하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이란 텍스트를 통해서 나가르주나의 공(空) 불교와 바수반두의 유식 불교, 나아가 이를 통해 출세간적 진리와 세속적 진리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일심(一心)　　진여문(眞如門)--공(空)---출세간[眞]---고요한 물

생멸문(生滅門)--식(識)---세속[俗]---요동치는 물

→ 고요한 연못에 바람이 불면 연못은 요동치게 된다. 그러나 요동치는 연못을 떠나서 고요한 연못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연못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고, 바람은 깨닫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집착에 사로잡힌 마음을 상징한다.
→ 원효는 원래 마음에는 진여의 측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것은 인간의 요동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만 하면 그 자체로 고요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 원효에 따르면 우리는 생멸문으로부터 진여문으로 이행하고 그리고 이렇게 도달한 진여문으로 생멸문으로 이행한다. 전자가 자리(自利)라면, 후자는 바로 이타(利他)이다.
→ 자리의 생멸문은 집착하는 마음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것이라면, 이타의 생멸문은 진여문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타자와 만나서 그에 어울리는 마음을 작동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것이다.
→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원효가 진여의 측면과 생멸의 측면이 모두 있는 마음을 '아라야식'이라고 규정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아라야식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유식 불교의 입장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